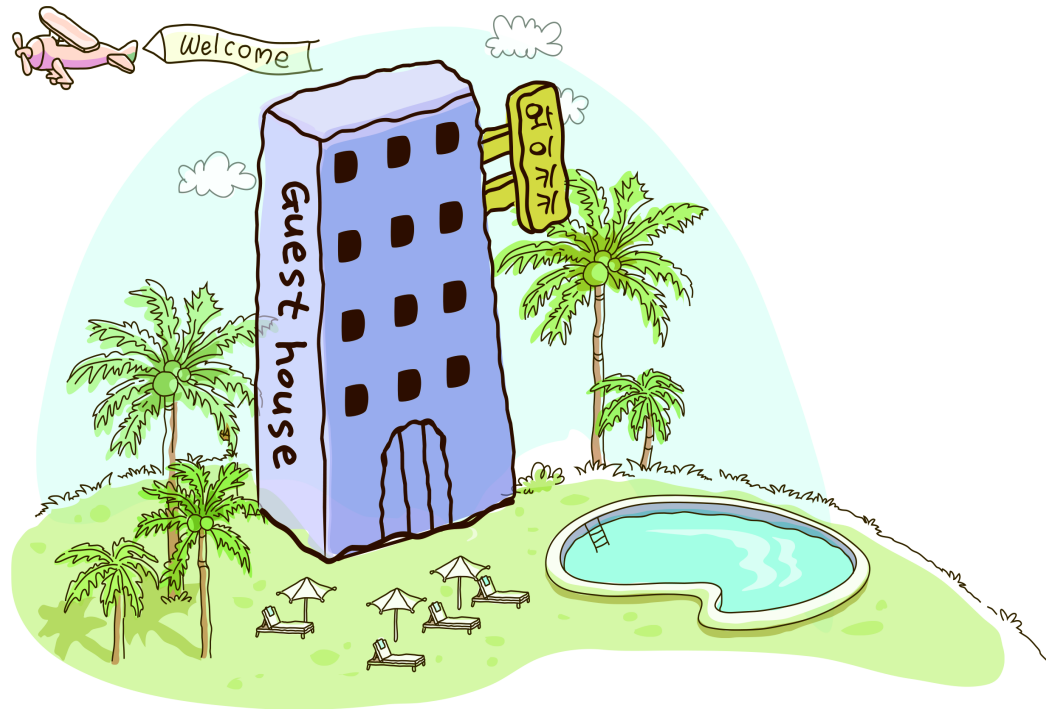


JTBC 월화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프로그램 협찬 제안서



제 목	으라차차 와이키키
형 식	JTBC월화 미니시리즈, 16회
편 성	2018년 2월 5일 ~ (예정)
극 본	김기호
연 출	이창민
제 작	씨제스프로덕션(주)

10년 만에 시도되는 **정통 시트콤 형식의 코믹 청춘 드라마**

시트콤 + 코믹 드라마가 몰락한 이유는 그저 한 물 간 트렌드여서일까?

아니, 그렇지 않다. 이유는 단순하다. 답은 웃기지 않아서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시트콤이 TV에서 사라진지 벌써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셋 여자 셋’ ‘순풍산부인과’ 그리고 밤 11시 시간대에 시청률 30프로를 돌파했던 ‘세친구’를 그리워하는 시청자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시청자들이 시트콤을 사랑했던 가장 큰 이유는 출생의 비밀도, 복수도, 감동도 아닌 오직 재미, 즉 웃기기 때문이었다.

우리 드라마는 시트콤의 형식을 뺀 코믹 청춘 드라마로 시청자들을 확실하게 웃길 것이다.

미스터리나 러브라인 같은 드라마적인 요소에 치중하기 보다는

에피소드 중심의 상황코미디로, ‘진짜’ 웃긴 드라마로 승부를 볼 것이다.

‘청춘 + N포 세대 시트콤’

이 시트콤은 대학생들의 캠퍼스 스토리가 아니라 서른을 코앞에 둔 인생의 단맛 쓴맛을 경험한 **청춘들의 이야기**다. 기본적으로 유쾌 발랄 상큼한 이야기이지만 N포 세대 청춘들의 슬픈 현실도 코믹하게 추가 해 이십대부터 사십대 시청자들도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드라마를 만들 것이다

‘이태원 라이프’

이 지역은 여러 나라의 문화가 어우러져 있고, 그 중에서도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는 경리단 길의 **게스트하우스를 배경**으로 주인공들과 외국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해프닝**을 코믹하게 그려 트렌드를 반영하고 지금껏 보지 못한 신선한 에피소드와 색다른 코미디를 선사할 것이다.

‘시트콤 버전 남녀탐구생활’

한때 방송에서 남녀의 차이를 리얼하고 디테일하게 표현해 나름 핫한 인기를 끌었다. 남녀탐구생활이 인기를 끌었던 이유는 드라마에 나오는 비현실적인 남녀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남녀 이야기! 바로 내 이야기!** 였기 때문이다. 이 드라마는 현실을 살아가는 진짜 남녀, 진짜 커플의 심리를 디테일 하게 구현함은 물론 에피소드에 적극 반영해 100퍼센트 공감 가는 코미디를 선보일 것이다.



극본 김기호

2016. SBS 나청림 의원 납치 사건

2014. SBS 모던파머

2013-2014. TVN 푸른거탑 리턴즈

2013. TVN 푸른거탑 제로

2013. TVN 환상거탑

2013. TVN 푸른거탑

2012. TVN 롤러코스터2 - 남녀탐구생활

2007-2008. MBC 김치 치즈 스마일

2005-2006. MBC 안녕, 프란체스카 시즌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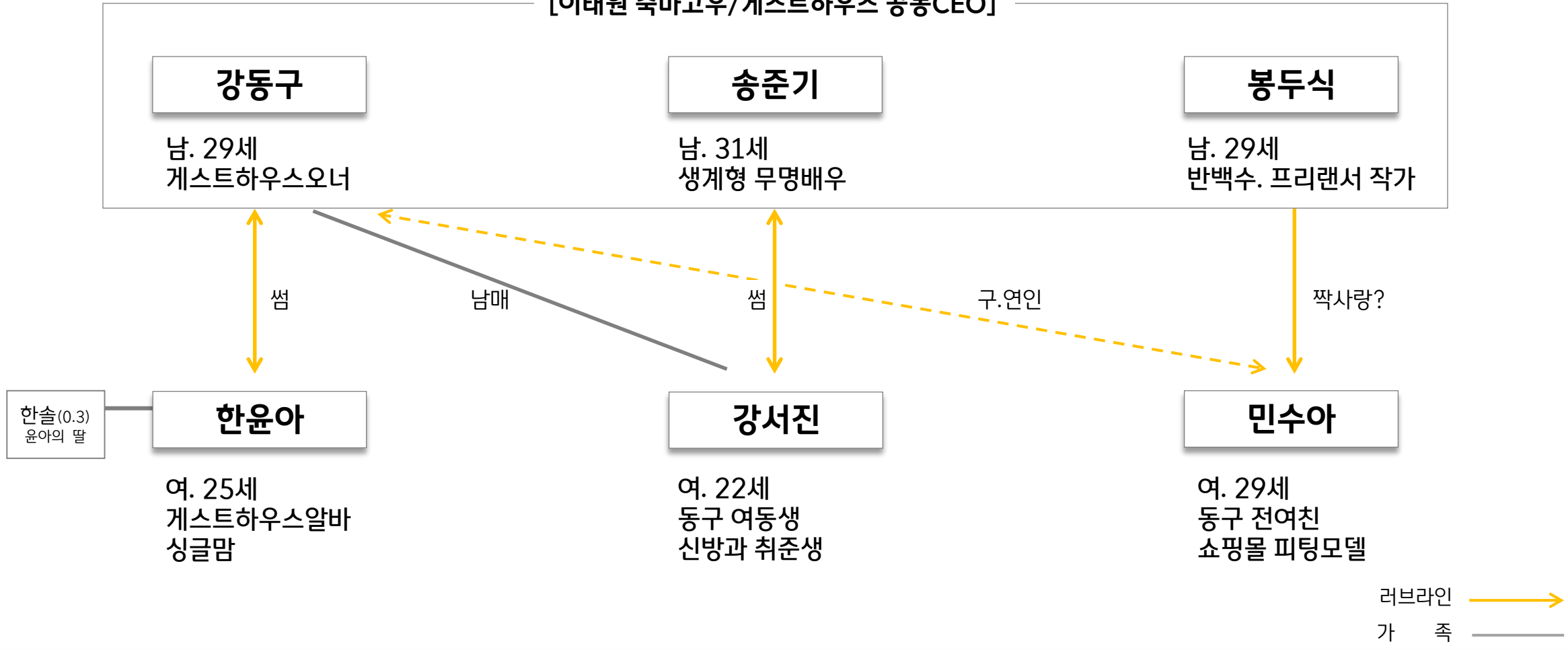
2004-2005. MBC 논스톱5

2003-2004. SBS 형사

2002-2003. MBC 논스톱3



[이태원 죽마고우/게스트하우스 공동CEO]



봉준호, 이병헌, 대 작가를 꿈꿨던 우울한 청년들의 재미난 이야기

봉준호를 능가하는 대감독을 꿈꿨던 동구. 이병헌을 씹사 먹는 최고의 배우를 꿈꿨던 준기. 최고의 작가를 꿈꿨던 두식.
세 청년은 이태원 한 동네에서 자라며 언젠가 성공해서 함께 멋진 영화를 만들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세상은 그리 만만한 곳이 아니었다.

각자 꿈을 쫓아 영화판에 호기롭게 뛰어들었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었다. 그 중에서도 동구는 아버지가 부도를 맞고 잠적해버려 졸지에 여동생 서진의 보호자이자 집안의 가장이 되고 만다. 영화판에서 버는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으로 감당할 길이 없어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으나 그 흔한 자격증 하나 없어 취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허구한 날 모여서 신세한탄하며 술 마시는 게 일상인 루저 청년들.
그러던 어느 날, 준기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게스트 하우스를 제안한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 숙소난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태원에 게스트하우스를 차리면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철없는 청년들은 대출까지 받아 게스트 하우스를 창업하기로 의기투합한다. 모두들 떼 돈을 벌어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비용까지 마련할 수 있을 거란 꿈에 부푸는데...

이게 웬걸, 개업식까지 마친 다음 날, TV에 ‘사드배치 문제로 중국인관광객 급감. 숙박업체 직격탄!!!’ 이런 쟁쟁!!! 썩하고 해 뜰 날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시작하자마자 망했다. 그 후 1년, 게스트 하우스는 사드보복의 직격탄을 맞고 망하기 일보 직전의 상태가 되고 만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도 없는 행한 게스트 하우스를 청소하다 3개월쯤 되어 보이는 갓난아이를 발견하게 된다. 오 마이 갓~~!! 별의 별 연놈을 다 봤지만 아기를 놓고 가다니 황당할 노릇이다.

평생 육아라곤 1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사내놈들은 아기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하게 되고 결국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기로 결심했지만, 막상 보육시설에 도착하니 망설여진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는 세 남자.

신이 있다면 이걸 좀 심한 거 아닌가 싶어 눈물이 날 지경인데, 그때 20대밖에 안돼 보이는 윤아가 나타나 아기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 댄다. 사연을 들어보니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따로 없다. 거기다 돈도 없고 마땅히 지낼 곳도 없는 딱한 신세. 지들도 바람 앞에 등불 신세인 주제에 대책 없이 마음만 여린 남자들은 여자를 게스트 알바로 채용하고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숙식제공을 하기로 한다.

그렇게 대책 없이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한 철 없는 세 청년과 느닷없이 동거인이 된 민폐 싱글맘.

그들이 펼치는 요절복통 게스트하우스 창업기와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육아전쟁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사랑과, 우정, 가슴 뭉클한 성장기가 펼쳐진다.



강동구 (남, 29) 와이키키의 CEO 겸 프리랜서연출가.

“신이 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니 세상아!”

계속되는 악운으로 인해 시니컬해진 투덜이. 욱하면 앞뒤 안가리는 폭주기관차.
그러나 5분도 안되 후회하며 잠도 못자는 천하의 소심쟁이.
마음은 또 약해서 여기저기 이용만 당하고 늘 손해를 보는 착한 헛똑똑이.



김정현

이태원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 초딩 시절, 병으로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 여동생 서진과 함께 살았다. 준기 두식과 한동네에서 함께 자랐다. 셋이 친해진 계기는 바로 영화. 영화광인 셋은 매일같이 두 살 많은 형인 준기의 집에 모여 365일 영화에만 빠져 살았다. 셋의 꿈은 나중에 커서 동구는 감독, 준기는 배우, 향호는 시나리오를 맡아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작을 만드는 것이었다. 영화감독을 꿈꾸던 동구는 연극영화과에 입학.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 단편영화제에서 상을 휩쓸며 제2의 봉준호라는 호칭까지 얻게 된다. 대학 졸업 후 동구는 의기양양하게 영화 판에 뛰어들었으나 현실은 쥐꼬리만 한 임금에 밤샘을 밥 먹듯 했지만 연출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았고 악덕 제작사와 믿었던 선배들에게 이용만 당하며 온갖 고생만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마저 부도를 맞게 되어 아버지는 잠적해버리고 동구가 졸지에 여동생 서진의 보호자이자 집안의 가장이 되고 만다. 그러나 영화판에서 버는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비와 서진의 학비까지 감당할 길이 없었다. 동구는 결국 감독의 꿈을 접고 취업을 준비했으나 밤낮 영화판으로 뛰어다니느라 그 흔한 자격증 하나 없었기에 취업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그 후 알바를 전전하며 3류 무명배우 준기, 천상한량 두식과 날이면 날마다 술 마시고 신세한탄 하는 게 일이던 어느 날, 준기가 기가 막힌 사업 아이템이 있다며 게스트 하우스를 제안한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 숙소난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태원에 게스트하우스를 차리면 앉아서 떼돈을 벌 수 있단다. 그럼 어릴 적 우리가 꿈꿨던 영화를 직접 찍을 수 있다는 거다. 준기의 달콤한 제안에 홀라당 넘어간 동구는 월셋방 보증금에 대출까지 왕창 받아 준기 두식과 함께 이태원에 게스트 하우스를 창업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것도 개업식 날 사드 배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 후 1년, 게스트 하우스는 사드보복의 직격탄을 맞고 망하기 일보직전의 상태가 되고 만다. 어느덧 내년이면 서른. 영화감독은 커녕 굶어죽지 않으면 다행인 꿈도 희망도 없는 청년실신시대의 표본 같은 인물.

- 직업

이태원 게스트 하우스 ‘와이키키’의 CEO 겸 프리랜서 연출가.
영화감독을 꿈꾸고 있으나, 현재는 이따금 선배가 물어다 주는 회갑잔치, 돌잔치, 결혼식 영상, 상점 홍보영상, VJ 등등 돈 되는 영상은 다 찍는다.

- 애정관계

수아와 4년째 연애 중이었으나, 능력부재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이별통보를 받는다. 그러던 중 게스트하우스에 얽혀 살게 된 민폐 싱글맘 윤아와 티격태격하다 사랑에 빠지게 된다.

송준기 (남, 31) 명품배우를 꿈꾸는 생계형 무명배우.

“나배우야. 피부 관리는 강남에서 해야 피부가 숨을 쉰다”

염치와 체면이라는 게 없는 뽀뽀남.
여자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나가는 가벼운 마인드의 소유자.
손해 보는 짓은 ‘1’도 안 하는 압삽함 마저 겸비한 트러블메이커.



이이경

동구, 두식과 한 동네에서 자란 2년 선배.
준기의 아버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로 칭송 받는 명품 배우다. 그렇기에 준기는 어려서부터 배우를 꿈꿨다.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준기가 아버지를 잇는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가 될 거라 기대했다.
그러나 주변의 기대만큼 연기에 재능이 없던 준기는 연기자로 주목 받지 못했고, 늘 아버지의 그늘에 가려 비교당하는 게 일어났다. 그로 인한 자괴감과 스트레스로 아버지와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영화에 캐스팅 된 것이 아버지의 입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아버지와 대판 싸우고 집안을 뛰쳐나온다.
이후 준기는 아버지의 후광 없이 반드시 성공하고 말겠다며 무명 연기자의 길을 걷지만 일은 꼬여만 갔고, 현재까지 단역, 홈쇼핑, 쇼핑몰 모델 등 돈 되는 건 뭐든 하는 생계형 배우신세가 된다.
그러던 중 동구 두식과 함께 영화 제작비를 벌기 위해 게스트하우스를 창업했지만 사드문제로 문 닫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굶어 죽어도 신상 옷은 사야 되고, 게스트 하우스 숙박비를 빙땅 쳐서라도 피부 관리는 해야 하는 외모관리 집착남이다.
심지어 요즘엔 그루밍 족이 되겠다며 메이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직업

돈 되는 건 뭐든 하는 생계형 배우

- 애정관계

오는 여자 안 막고 가는 여자 안 잡는 한마디로 바람둥이.
휴대폰에 여자 전화번호만 만개가 넘지만, 남자 전화번호는 아예 저장조차 하지 않는 굳은 심지의 소유자.
그저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내 여자려니 하고 산다. 단, 예쁜 여자만.
훗날 친구 동생으로만 여겼던 서진과 묘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봉두식 (남, 29) 배고픈 시나리오 작가.

“난 순진해서 잘 몰라 응큼이 뭐야? 근데 왜케 더울까 나 좀 벗고 있을께~”

착하고 순한 성격이나, 잔머리도 잘 굴리는 곰 같은 여우.
눈빛만 마주쳐도 사랑에 빠지는 대한민국 최고의 금사빠.
프로 식탐러.



손승원

동구, 준기와 한 동네에서 자란 불알친구

아빠도 서울대, 엄마도 서울대, 형 누나도 서울대 알아주는 수재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다.

그러나 두식은 공부에는 전혀 소질이 없었고, 영화와 시나리오에만 빠져 살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두식의 꿈을 인정하지 않았다.

결국 두식은 엄한 부모님의 뜻대로 죽어라 공부에 매달렸으나 서울대는커녕 지방 4년제 대학도 가지 못할 처참한 성적표를 받게 된다. 부모님은 두식을 스파르타식 재수학원에 집어넣었으나 두식은 허구헌날 술집과 게임방을 전전하며 방황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두식은 이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겠다 결심하고 부모님께 대학 포기하고 시나리오 작가가 되겠다는 폭탄선언을 한 후 가차없이 집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모든 걸 포기하고 영화판에 뛰어든 두식은 악덕 제작사의 노예계약에 걸려 일은 일대로 하고 개발한 아이디어만 빼앗기고 이리 저리 이용만 당하다 처참하게 버려지게 된다. 수입 제로의 두식은 점점 아사 직전의 상태가 되어갔고 다른 건 다 참아도 배고픈 건 못 참는 두식은 목숨보존을 위해 컴백홈 한다. 그 후 부모님, 형 누나의 잔소리와 핍박이 계속됐고, 베게에 눈물 마를 날이 없었다. 그러나 밥은 꼭 챙겨주었기에 참고 또 참았다.

그렇게 와신상담을 꿈꾸며 고난의 시절을 보내던 어느 날, 준기의 게스트 하우스 창업 제안을 받고 홀라당 넘어가게 된다.

어릴 적부터 꾸어 온 꿈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 여긴 두식은 무려 한 달간의 단식투쟁을 벌인 끝에 부모님께 유산을 미리 땡겨 받는 데 성공 게스트하우스 사업에 때려 박는다. 그러나 모든 걸 걸고 창업한 게스트하우스는 사드사태의 직격탄을 맞고 바람 앞에 등불신세가 된다.

- 직업

와이키키의 공동 CEO 겸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 중이다.

말이 작가지... 반 백수나 다름없다. 웹소설 연재부터, 웹툰 스토리, 19금 애로물, 자소서 대필, 자서전 대필, 논술 과외 등등 돈 되는 글은 다 쓰는 것도 모자라 동네 편의점 호프집에서 알바까지 하며 살아간다.

- 애정관계

소개팅, 짝사랑 전문가. 소개팅 전적 235전 235패. 짝사랑 전적 135전 135패. 연애 한번 해보는 게 꿈이다. 이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거나 우울한 외모 때문에 현실 연애는 꿈같은 일일 뿐이고 범죄자, 치한으로 오해 받는 게 일상이다.

그렇게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중, 불알친구 동구의 전 여친인 수아와의 위험한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한윤아 (여, 25) 게스트하우스에서 알바하는 싱글맘.

“왜 사람들이 사차원이라고 할까요? 우리 삼차원에 살고 있는데!?”

뭐든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은 지나칠 정도로 강하나 늘 사고만치는 마이너스의 손.
무시무시한 건망증에 멍하고 눈치 없는 사차원 허당녀.
그러나 꿈을 찾아 홀로서기에 도전하는 곳곳한 청춘.



정인선

게스트하우스에 얽혀 살게 된 싱글 맘.

스물다섯에 생후 3개월 된 딸 솔이를 아빠도 없이 홀로 키우게 된 기구한 청춘이다.

어린 시절 화재로 부모님을 잃고 혼자 남겨졌다. 이후 고아원에서 자라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독립하게 되었으나 학벌도 기술도 없었기에 변두리 공장에 다니며 빠듯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아갔다. 그러던 중 만난 한 남자와 불같은 사랑에 빠져 아이를 갖게 되었으나 남자에게 버림받는다. 아이를 지워야 하나 고민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 없었다.

그 후 홀로 아이를 낳았으나 아이 때문에 일도 못하고 월셋방 보증금을 까먹으며 버티다 결국 쫓겨나게 되고 온갖 고생을 하다 게스트 하우스에 솔이를 버리고 도망치기에 이른다. 그러나 금새 후회하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와 잡일을 맡아 하며 동거하게 된다.

청순 가련한 외모와는 달리 멍하고 눈치가 없어 해도 될 말 하면 안 될 말을 가리지 못해 주변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아무데서나 상의를 걷고 아기 젖을 물려대는 과감한 행동으로 남자들을 패닉에 빠뜨린다. 청소, 빨래, 설거지 등등 뭐든 열심히 하겠다는 의욕이 지나칠 정도로 강하나 제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변사람들의 분노를 산다. 출산 후 건망증이 무시무시하게 심해져 방금 한말도 기억을 못하고, 커피포트를 가스레인지에 올려 태워먹기도 하고, 바지를 깜빡 한 채 외출하기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아기와 함께 외출했다 아기를 잃어버리는 일도 허다하다.

그러나 게스트하우스 사람들의 도움으로 정을 느끼게 되고, 점차 성장하며 홀로서기에 도전하게 된다.

- 직업

게스트하우스에서 청소, 요리, 빨래 등을 담당하는 알바
제빵에 재주가 있어 이태원 거리에서 노점을 시작하고 파티쉐란 꿈에 도전하게 된다.

- 애정관계

매일 같이 까칠하게 굴어대고 구박만 해대던 동구에게 맘이 가기 시작한다.

강서진 (여, 22) 동구의 여동생. 신방과 취준생

“하. 이게 또... 오빠넌 오늘 죽었어! 딱 기다려!”

아침마다 면도하는 털복숭이 ‘츄바카’
괄괄한 성격과 수염이라는 특이체질 덕에 연애 한번 못해본 연애고자.
오빠들의 귀여운 호구지만 게스트하우스의 실질적인 살림꾼.



동구의 여동생. 동구와 함께 게스트 하우스에서 살고 있다.

아버지가 빚쟁이에 쫓겨 잠적한 후 동구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지지리 철없는 동구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건 서진이다. 신방과 4학년으로 취업준비에 한창이다. 얼마 후, 인터넷 언론의 인턴 기자로 취업하게 된다.

철없고 게을러터지고 생각 없는 오빠들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하느라 이젠 자신이 이 인간들 동생인지 엄마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다. 늘 잔소리를 입에 달고 살고 집안 살림의 실질적인 책임자다.

오빠들에게 허구헛날 이용당하고 속으며 살아가는 귀여운 호구.

그 중에서도 특히 뻘질이 준기와 양숙 중에 양숙이다. 매일같이 싸워대는 게 일이고,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다.

남성호르몬이 과다분비 되는 탓에 하루만 면도를 하지 않아도 코 밑과 턱에 수염이 자라나는 특이체질.

그래서 오빠들 사이에선 스타워즈의 털복숭이 ‘츄바카’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괄괄한 성격과 수염이란 특이체질 덕에 지금껏 연애 한번 못해본 연애고자.

하지만 늘 운명 같은 로맨스를 꿈꾸고 연애에 목말라 하고 있다.

- 직업

신방과 4학년. 기사를 꿈꾸는 취업준비생.

- 애정관계

훗날 지상 최악의 남자라 생각했던 준기에게 흔들리게 되고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

민수아 (여, 29) 동구의 전 여친. 쇼핑몰 피팅모델

“내가 속물인게 아니라 니가 철이 없는 거야”

도도한 척, 세련된 척, 쿨한 척 허세로 뚝뚝 뭉친 철부지.
점찍은 남자 자빠트리는 애교내숭 만렙 여우.
그러나, 귀도 얇고 머리도 나빠 허구헛날 사기나 당하는 여우 같은 곰.



이주우

동구의 전 여자친구.

어렸을 때부터 예쁜 외모 탓에 늘 주목 받고 살아서인지 자존심도 세고 도도함이 하늘을 찌른다. 그러나 기죽고 싶지 않아 강한척 할 뿐 겁도 많고 걱정도 많고 눈물도 많다. 겉으로 고고한 자태를 자랑하지만 물 아래에선 미친 듯 발장구를 치는 한마리 백조라고나 할까... 학창시절 공부보단 노는 걸 좋아했고, 도서관보단 클럽, 스펙보단 화장법, 네일, 패션 등에 열과 성을 기울였다. 대학시절 잘생긴 외모와 제 2의 봉준호라 불리며 거침없이 잘나가던 동구와 연인이 되어 모두에게 부러움을 사는 캠퍼스 커플이 되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수아의 화려한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성적도 짱, 스펙도 짱, 오로지 믿는 건 얼굴과 몸매뿐이라 취업은 불가능. 자존심상 힘들고 모양 빠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기에 모델계로 입성한다. 그러나 일반인 사이에서나 군계일학이지 모델 계에선 평범하기 그지 없는 외모에 실력도 짱이라 쇼무대엔 서보지도 못하고 퇴출된다. 현재는 쇼핑몰 피팅 모델과 다리 부분모델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어느덧 스물아홉... 내년이면 서른이다. 나이가 들자 피부도 쳐지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아 피팅 모델 일도 어린 애들에게 점점 밀려나 일하는 날보다 노는 날이 더 많은 반 백수 상태. 커리어우먼으로 승승장구하고 능력 있는 남자와 결혼에 성공한 친구들을 보면 자신의 신세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싶다. 부모님도 시집이나 가라며 온갖 압박을 가하는데 남자친구란 놈은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허구헛날 술이나 퍼 마시고, 사업은 말아먹기 일보직전이다. 거기다 결혼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다. 피부도 쳐지고 몸매도 예전 같지 않은 데 이놈 성공하길 기다리던 똥값 될 거 같다. 결국 수아는 아무런 비전도 능력도 없는 동구와 헤어지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세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른 전에 능력 있고 완벽한 남자를 만나 결혼하는 것!!

동구와 헤어진 후 수아는 능력 있는 남자를 꼬셔 결혼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한다. 그러나 별 희한한 남자들을 만나 온갖 고생만 하게 된다. 그러다 결국 혼인빙자 사기꾼에게 당해 오피스텔 보증금까지 날리고 길가로 나앉게 된다. 하지만 비극은 그게 끝이 아니었고, 모양 빠지게 헤어진 옛 남친 동구의 게스트하우스에 얽혀 살게 되는 악몽 같은 상황에 이른다.

- 직업

쇼핑몰 피팅 모델과 다리 부분모델 일을 하고 있으나 나이 때문에 퇴물 모델 취급을 받고 있다.

- 애정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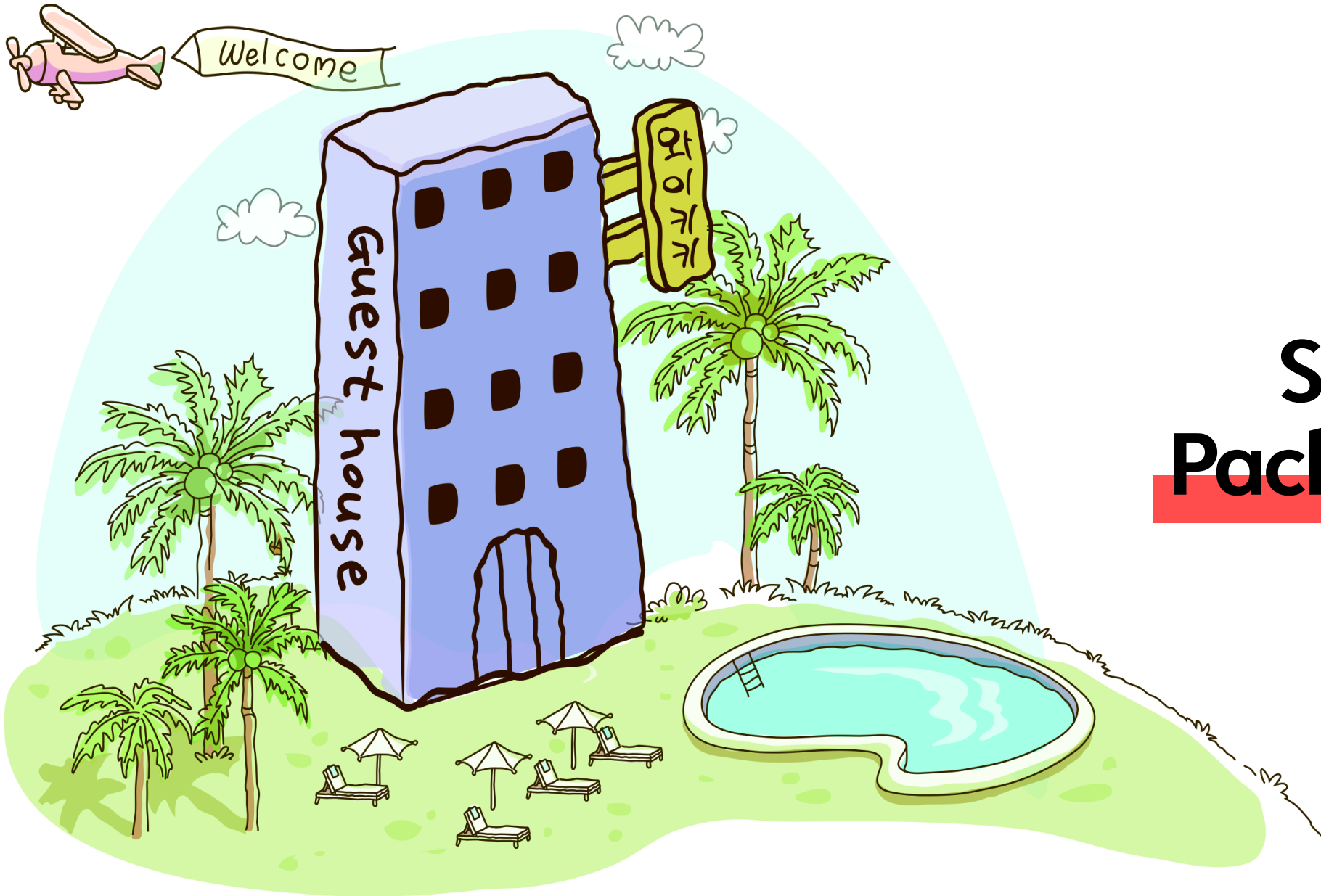
동구와 헤어지고 돈 많은 남자를 꼬시려 별의 별 짓을 다 하지만 뽕 하면 똥통수 맞고 사기 당하는 게 일이다.

평생 눈곱만큼도 남자라 생각해 본 적 없던 술친구이자 남사친 겸 전 남친 동구의 둘도 없는 친구인 향호와 묘한 감정이 싹트게 된다.

한솔 (생후 3개월) 싱글맘 윤아의 딸.

윤아의 3개월 된 딸.
육아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던 남자들을 패닉으로 몰아넣는다.

**이후 추가될 인물들은 이야기에 맞춰 추후 캐스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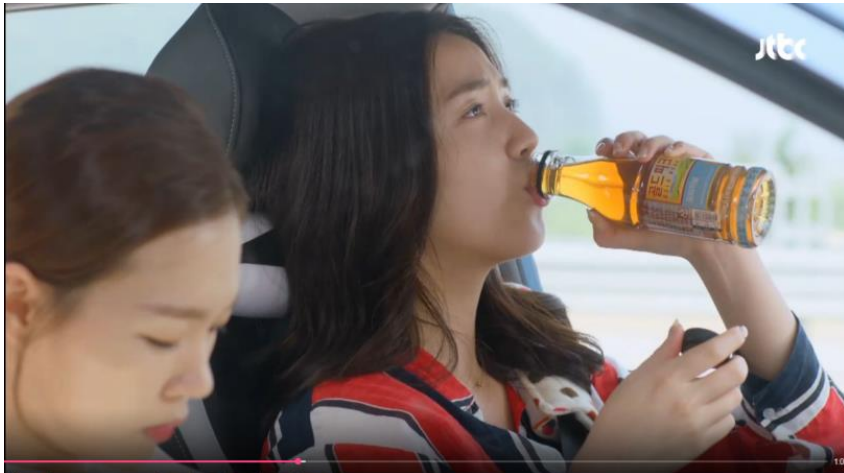


주요 품목 Sponsorship Package Guide

언제 어디서나 마시는

- 협찬사 브랜드가 소구하는 방향성에 맞춘 상황 연출 협의 가능.(수분충전, 답답할 때 등)
- 게스트하우스 곳곳에 음료 배치 및 음용 노출.
- 아웃트로 범퍼 가상광고(7초, 무빙소재 가능) 전회차 노출 제공.
- 전회차 제작지원바 노출 제공.

[청춘시대2X골드피크 집행 사례]



- 에피소드/음용/배치 각 2회
- 아웃트로 범퍼 가상광고 전회차 노출
- 전회차 제작지원바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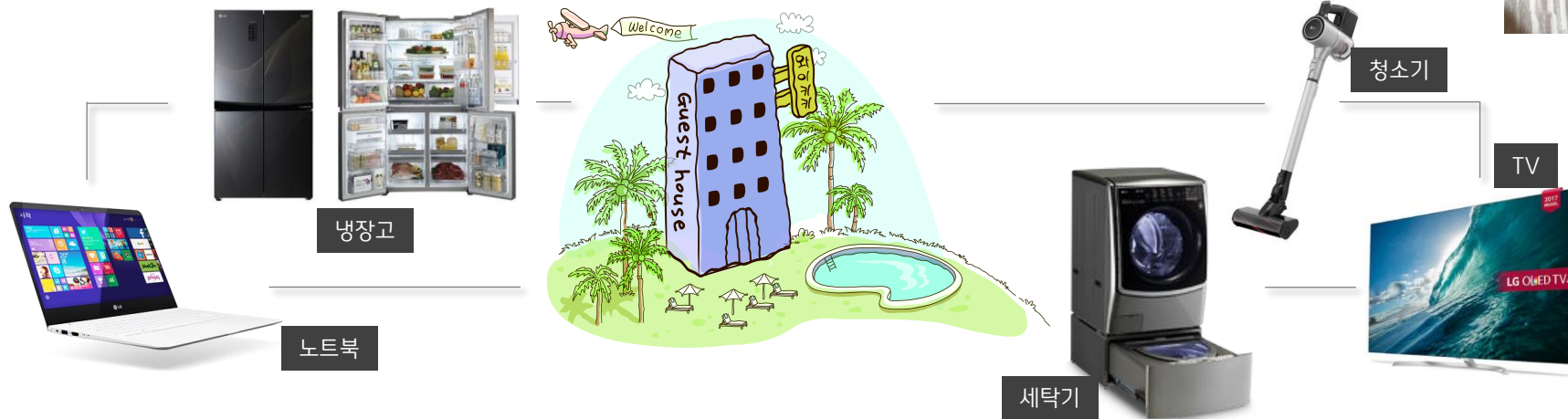
2억 원 (VAT별도/대행료 포함)

- *현물 지원 필요
- *제품 음용/에피소드 구성은 별도 협의 필요

생활가전 in Guest House

- 게스트하우스 내 배치될 가전에 대한 전방위적 노출 패키지.
- 대부분의 에피소드가 게스트하우스 내에서 이루어지며, 내용 상 청소/빨래 장면은 수시로 등장!
- 협찬사 마케팅상품에 맞춘 에피소드 구성 및 제품 사용 진행 가능.(안마의자 에피소드 등)
- 전화차 제작지원바 노출 제공.

[청춘시대2XLG전자 집행 사례]



- 에피소드 2회
- 단순노출 4회 + α
- 전화차 제작지원바 제공

1억 원 (VAT별도/대행료 포함)

*세트 내 배치될 제품 현물 지원 필요
*제품 사용/에피소드 구성은 별도 협의 필요

아르바이트 직업군

- 단순 식사 장면이 아닌 주연 캐릭터의 아르바이트 장소로 직업군 설정 및 매장 노출.
- 협찬사 브랜드 소구점에 맞춰 매장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구성 협의 가능.
- 전회차 제작지원바 노출 제공.

[청춘시대2X두끼떡볶이 집행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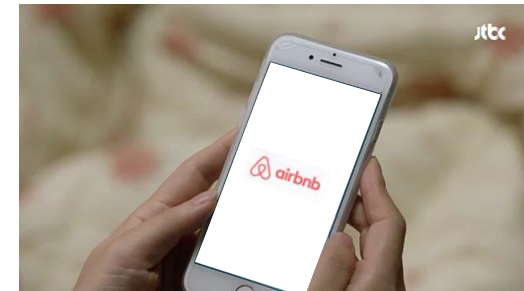
- 에피소드 및 매장 노출 2회
- 전회차 제작지원바 제공

1.5 억 원 (VAT별도/대행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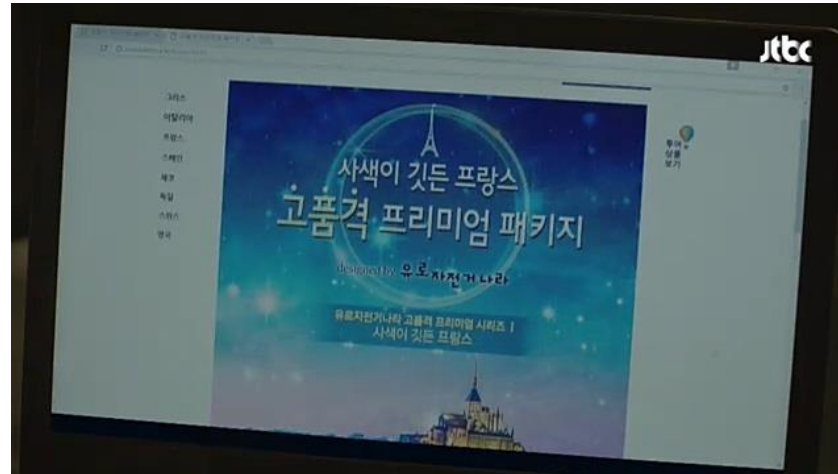
- * 촬영 매장 제공 및 협조 필요
- * 유니폼 등 노출 내용 사전 협의 필요

App. 활용 에피소드

- 게스트하우스 운영 및 모객 Tool로 활용 및 방문객이 등장하는 주요 에피소드 툴로 활용.
- 협찬사 니즈에 맞춘 에피소드 구성(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한 고객 관리 등) 협의 및 진행 가능.
- 전회차 제작지원바 노출 제공.



[더패키지X유로자전거나라 집행 사례]



[집행 예시]

- 에피소드 2회
- 전회차 제작지원바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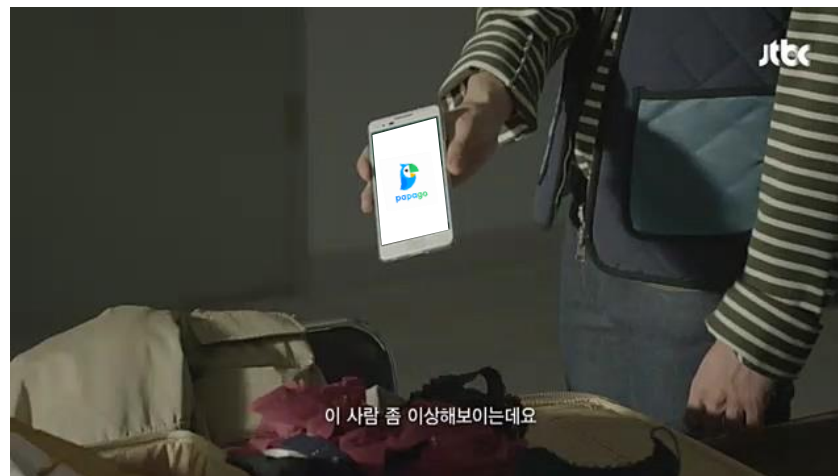
0.8 억 원 (VAT별도/대행료 포함)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활용 협조 필요
(심의에 맞는 화면 디자인 구성 등)

App. 활용 에피소드

- 게스트하우스 외국인 방문객 등장 시 언어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주요 에피소드 tool로 노출.
- 주연 배우 中 1인이 평상시 영어 공부하는 연출 협의 가능.
- 전화차 제작지원바 노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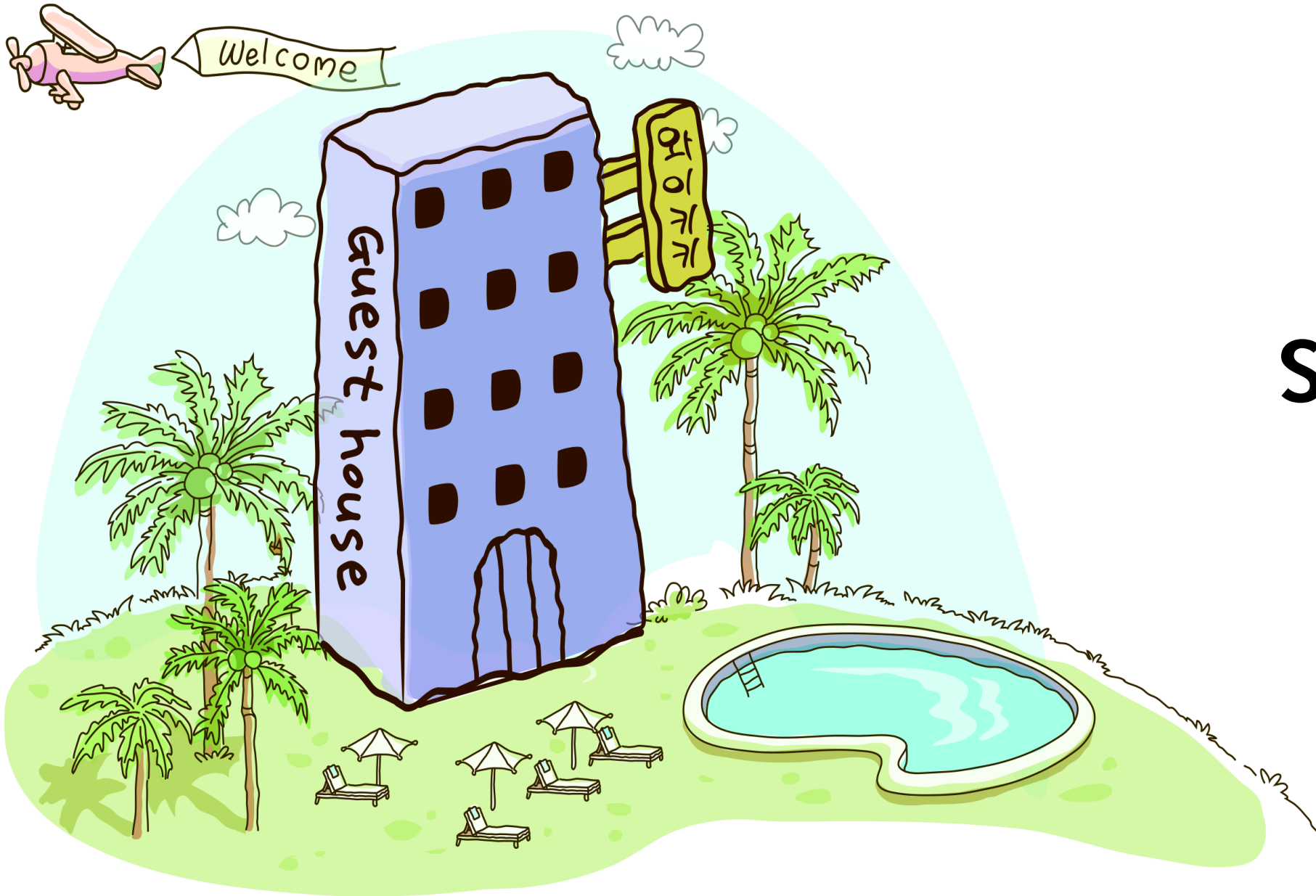
[어학/통역 App. 활용 예시]



- 에피소드 2회
- 전화차 제작지원바 제공

0.8 억 원 (VAT별도/대행료 포함)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활용 협조 필요
(심의에 맞는 화면 디자인 구성 등)



Sponsorship Tool Guide

단순 / 기능 PPL

드라마 내 제품 비치 통한 자연스러운 브랜드 노출부터
제품의 사용/음용/착장 등의 연출을 통한 제품 기능 노출 제공



[힘센여자 도봉순_토레타 기능 PPL 사례]



[맨투맨_제이준/티파니 단순 PPL 사례]

1회 **2,000~4,000만원** (VAT별도)

에피소드 PPL

드라마 스토리 단계에서 극중 주요 상황을 제품 음용/사용, 매장 방문 등으로 구성하여
협찬사 니즈에 맞는 스토리와 임팩트 있는 브랜드 노출 제공



[맨투맨_놀부 부대찌개 에피소드 PPL 사례]

1회 **4,000만원** (VAT별도)

제작지원바

몰입도 및 도달율이 가장 높은 드라마 엔딩 장면에서 브랜드 로고 직접 노출 제공



[힘센여자 도봉순_탐앤탐스 커피 제작지원바 사례]



[맨투맨_제이준 제작지원바 사례]

1회 **500만원**(VAT별도)

* 월단위 판매 가능

가상광고

드라마 시작 또는 엔딩 시점에 CG를 활용한 영상 광고를 화면 위로 노출
모션그래픽, 프레임 가상광고 등을 활용하여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인 브랜드 및 메시지 전달



[힘센여자 도봉순 에필로그 프레임 가상광고 사례]



[맨투맨 에필로그 아웃트로 범퍼 가상광고 사례]

1회 **2,000만원**(VAT별도)

*전화차/반회차 판매 가능(단가 별도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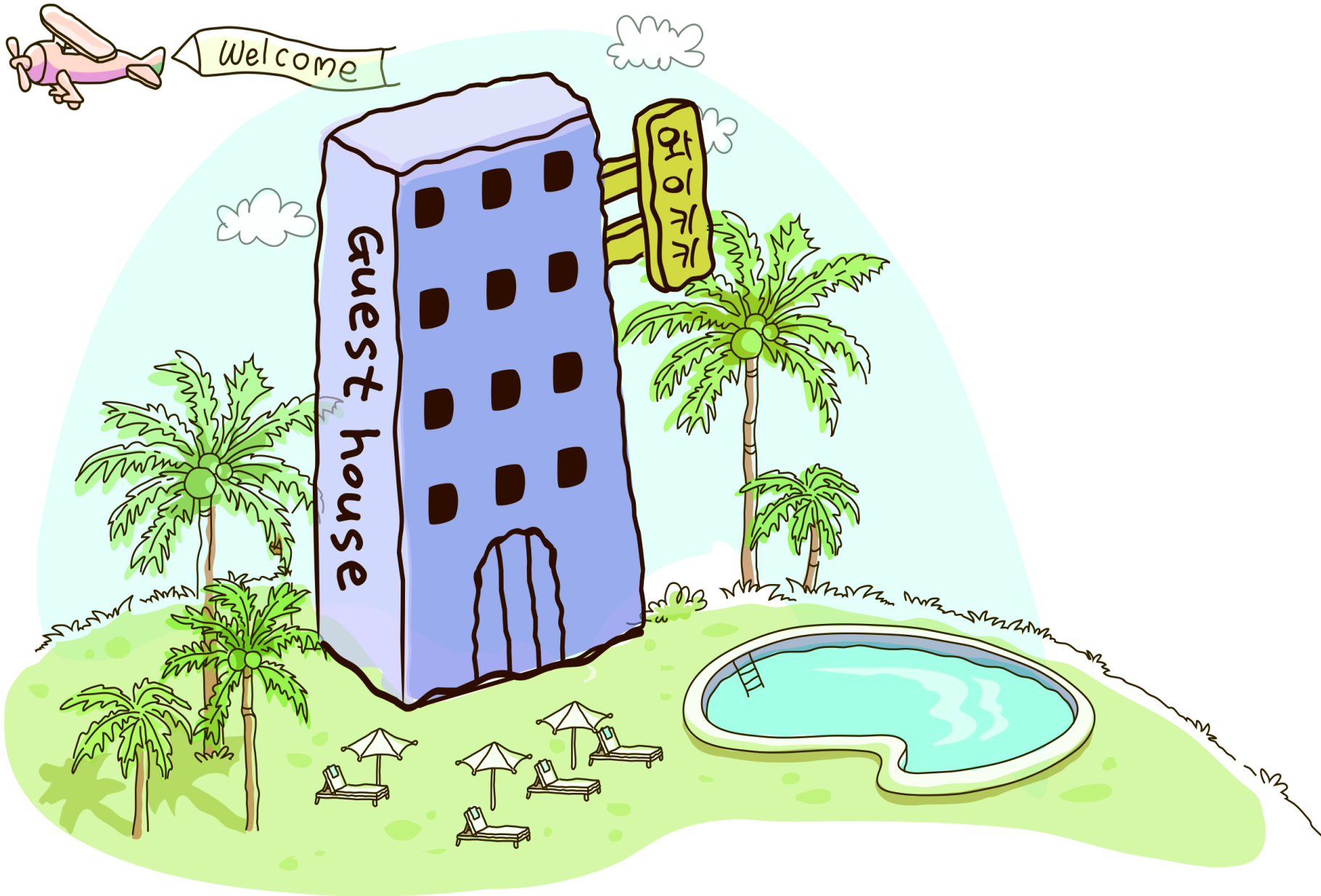
풋티지/맞춤형 광고

드라마 내 진행된 간접광고 풋티지 활용 또는 별도 촬영을 진행하여 브랜드 맞춤형 광고 제작
드라마 전후 CM으로 집행하여 시청자들에게 전방위적 브랜드 노출 가능



[더패키지X유니온페이 풋티지 광고 집행 사례]

별도 협의



감사합니다